

[COVID-19]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Plugged In: Perspectives from U.S. utilities on potential COVID-19 impacts



전력 및 유틸리티 기업들은 다른 산업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COVID-19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처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COVID-19는 기존 시나리오의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전력 기업들은 기업위험관리(ERM) 계획의 일부로 극단적인 위험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장단기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PMG는 COVID-19가 전력, 가스, 그리고 수력 등 유틸리티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유틸리티 기업들은 대부분의 현장 근무 직원들을 원격 근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네트워크 접속 문제, 회사내 장비 사용불가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유틸리티 기업들은 최신 장비 및 기술 등 강화된 자원과 새로운 통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틸리티 기업들은 개별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 후에도 개인 위생 및 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웰빙 마인드(well-being mind)는 임직원의 안전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이탈리아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전력 소비가 18%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수익 감소에 대비하여 재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COVID-19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틸리티 기업들은 설계 변경, 원격 배터리 스토리지 및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등과 같이 장기적인 운영 모델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 표지 클릭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염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Keywords ▶

#COVID-19 #코로나19 #유틸리티기업